

『人文科學』 제120집

2020년 12월

**소설 속에 드러나는 呂赫若의
內台一如·南方에 대한 인식**
- 「鄰居」(1942), 「清秋」(1944)를 중심으로

신민영*

I. 서론

1931년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는 자작극을 벌여 만주 침략에 성공하고 난 후, 일본제국은 1937년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급기야 1941년에는 미국령 진주만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 격인 태평양전쟁을 도발했다. 일본제국의 폭주는 당시 식민지로 전락했던 대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식민당국은 식민지에서의 원활한 물적·인적 자원의 동원을 위해 식민지에서의 여러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 수정의 방향성은 바로 동화와 황민화(皇民化)였다. 이에 따라 내지인과 식민지인 사이의 노골적인 차별은 교묘하게 미시화되고 일상화되었다. ‘황국 신민’(皇國臣民), ‘팔굉일우’(八紘一宇), ‘내대일여’(內台一如) 등의 수사 아래

* 연세대학교 강사

내지인과 본도인(本島人)¹⁾ 사이의 차별을 애써 모른 척하는 방식으로 무화하려는 선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당연히 이들 구호는 식민당국이 문단의 작가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핫한’ 창작주제가 되었다. 작가의 필치를 덧입은 식민정책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대만 독자의 거부감이나 회의감을 걷어내거나 중화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뤼허뤄(呂赫若)의 「鄰居」(1942)와 「清秋」(1944) 역시 식민당국의 「문예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鄰居」에 대해서 뤼정후이(呂正惠)는, 당시 재대(在台) 일본인 작가들로부터 뤼허뤄가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대만의 가족사나 집착할 뿐, 정작 「내대친선」(內台親善, 지원병, ‘남방’(南方) 등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작가적 의지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만 농촌의 가족사를 서정적으로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鄰居」 정도만이 시국에 부합하는 작품이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²⁾ 한편 왕젠국(王建國)은 뤼허뤄의 일기를 토대로 『대만공론(臺灣公論)』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기 수개월 전에 이미 「鄰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음을 짚으면서 식민당국의 정책에 기계적으로 호응한 작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가의식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鄰居」의 ‘나’와 타나카(田中) 부부가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 본도인과 내지인 사이의 민족적 장벽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비단 내대친선의 선전에만 그치지 않고, 보편적 인류애를 기초로 하여 민족애를 넘어섬으로써 민족 평등과 상호 신뢰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바라는” 작가의 이상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를 미래의 어린아이들의 몫으로 넘기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함을 던지지 보여줬다고 읽었다.³⁾ 또한 선칭리(沈庆利)는, 작가가 ‘이야기’가 갖고

1) 일본 식민제국 아래에서 식민모국인 일본을 내지(內地)라고 칭하였다. 이와 구분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대만인들을 본도(本島) 출신 혹은 본도인(本島人)이라고 불렀다.

2) 呂正惠, 「‘皇民化’與‘決戰’下的追索」, 『呂赫若作品研究-台灣第一才子』, 聯合文學出版社, 1997.

3) 王建國, 「第二章中期問題小說對主體身份的追問」, 『呂赫若小說研究與論』, 台南: 台南市立圖書館, 2002, p. 105-117.

있는 다층성과 리얼리즘 기법을 절묘하게 이용하여 민족과 계급을 넘어서는 공통된 보편적 감정을 들어 내지인과 본도인 사이의 증오와 미움을 해소하려 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듯 케케묵고 진부한 인류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전쟁과 침략을 부추기는 잔인한 파시즘 정부에 소리 없는 저항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반문을 던진다.⁴⁾

한편 「淸秋」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왕젠귀는, 뤼허뤄가 「淸秋」를 통해 소설 창작에서의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주장한다. 왕젠귀에 따르면, 당시 슬럼프에 빠져 있던 뤼허뤄는 미적대상을 더욱 철저히 추구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쿠도 요시미(工藤好美)의 충고에 힘을 얻어 「석류(石榴)」라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석류」를 통해 미적대상에 대한 천착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지만, 작품 속에서 건설성/시국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었으며, 이것이 「淸秋」 탄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어, 왕젠귀는 「淸秋」가 내용이 난잡하고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으며, 심지어는 시국정책에 부합한 듯한 혐의도 있다고 읽었다.⁵⁾

이에 반해 타루미 치에(垂水千恵)는, 주인공 ‘야오선’(姚勳)의 개원이 주변에 방해에 의해 연기되다가 작품 말미에 장애물들이 갑작스럽게 일시에 제거되는 다소 억지스러운 구조를 갖는다고 하면서, 이는 작가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작가의 잠재의식을 반영한 ‘진짜’ 속내라고 주장한다. 야오선은 돈에 눈이 먼 세속적인 의료기술자가 아닌 의학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로서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애쓰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효(전근대적 가치)와 의자로서의 의무(근대적 가치)를 결합시키지만, 허가증 발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의 결심을 후회하고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자책한다. 타루미 치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독해한다. ‘야오선이 “결국 나는 전원(田園)의 아이”이며 “가문을 빛내 부친을

4) 沈庆利, 「政治高压下的智性求索」, 『华文文学』 第59期, 2003.

5) 王建國, 위의 책, p. 117-155.

편안히 모시겠다”라고 밝힌 처음의 다짐을 부정하고 ‘효’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다. 하지만 작품 말미에서 뜬금없는 방식으로 장애물들을 갑자기 처리해버림으로써 야오선의 근대화/일본화에 대한 욕망은 ‘효’라는 가면 뒤로 다시 숨겨졌다.⁶⁾

그런가 하면 요코지 케이코(橫路啟子)는 『淸秋』에서 야오선에게 아름다운 시절이란 식민정부가 가지고 들어온 공리주의나 자본주의 사상에 침범을 받지 않았던 시대의 대만이며 조부가 ‘문수재’(文秀才)일 수 있었던 시대였다면서, 이것이 곧 야오선의 ‘아이덴티티’이며 효의 중심에 있는 민족의 ‘아이덴티티’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가 효심을 다하고 존경하는 대상은 부친이 아니라 조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1940년대의 황민화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일본제국은 국민에게 천황의 ‘아들’로서 효를 다하라고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기의 동화정책은 이른바 천황인 ‘부친’과 국민인 ‘아들’로 구성된 일본제국이라는 가문 속으로 이민족이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을 ‘양자’로 들이는 구조였다. 그러므로 뒤희뤼가 야오선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효를 다하고 싶은 대상으로서 부친이 아닌 조부를 설정한 것은 당시 일본제국의 동화정책과 묘하게 어긋난다고 해석했다.⁷⁾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鄰居』와 『淸秋』는 뒤희뤼의 여느 작품들과 달리 시국적 분위기를 꽤 직접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鄰居』와 『淸秋』를 함께 독해함으로써 전쟁기 일본제국의 식민정책에 대한 작가 뒤희뤼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작품은 2년여의 시간간격을 두고 발표되었는데, 『鄰居』는 ‘내대친선’, ‘내대일여’를 연상케 하는 대만인과 일본인 사이의 이야기이다. 반면 『淸秋』에는 고향마을로 돌아오는 대만 젊은이와 ‘남방’으로 향하는 대만 젊은이가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 진행의 주된 대립축이 하나는 이민족과의 사이에 놓여 있다면, 또 다른 하

6) 垂水千惠 著, 『日本化與近代化的夾縫』, 『台灣的日本語文學』, 涂翠花 譯, 台北: 前衛出版社, 1998.

7) 橫路啟子, 『呂赫若 <淸秋> 論』, 『東吳日語教育學報』 第33期, 2009.

나에서는 대만인들 안에 설정되어 있다. 이는 동화·황민화 각각의 난점과 곤경이 다르다는 작가의 상황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야기의 예상독자 역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두 작품을 치밀하게 독해하고, 뒤희뒤희가 갈등축과 예상독자를 달리하며 전쟁기 식민정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하였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II. 본론

1. 공거(共居)와 식민지 지식인의 신경증적 불안

1) 대만인과 일본인의 공거(共居)

『鄰居』(1942)⁸⁾의 화자는 국민학교(國民學校) 교사인 대만인 청년이다. 그는 인력거꾼, 음식점 상인, 노점상, 공장노동자 같은 대만의 빈민층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에 방 한 칸을 빌려 생활한다. 그가 세 들어 사는 주변 일대는 도시 근교라고는 하지만 길이 개미골목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는데다가 한눈에 봐도 낡아서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집들이 뺨뺨하게 들어서 있다. 그리고 이 본도인(本島人)들의 주택지는 2, 3층짜리 집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는 변화가와 15미터 폭밖에 안 되는 간격을 두고 마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미골목처럼 복잡하게 뒤엉킨 듯한 본도인들의 집단 거주지와 청결하고 가지런히 정돈된 내지인(內地人)들의 거주지가 15미터의 폭을 두고 ‘이웃해 있다.’ 그런데 주인공 ‘나’가 살고 있는 방 한편으로 일본인 타나카(田中) 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15미터의 간격은 얇은 벽과 공동생활공간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린다. ‘나’와 타나카 부부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간격으로 ‘이웃하게 된다.’

8) 1942년 10월 『台灣公論』에 게재 ; 呂赫若 著, 『呂赫若小說全集(上)』, 林至潔 譯, 台北: 印刻出版, 2006, p. 325-344.

이야기의 본격적인 서사공간은 소음과 악취가 한데 뒤섞여 있고, 자전거 핸들을 정신없이 이리저리 꺾어야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본도인들의 거주지이다. ‘나’의 이야기는 어느 날 이곳으로 일본인들이 ‘불쑥’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이 사건의 이례성은 ‘나’의 반응에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나’는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내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란 나머지 나무막대기처럼 멍하게 서 있다가, 곧 “내지인이 특별히 새로올 것도 없는 지역에 살면서도, ‘타나카’라는 성씨를 듣고 내가 놀란 것은 내지인이 ‘근처(附近)’에 산다는 것이 의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同一個檐下)’ ‘바로 옆에(身旁)’ 내지인이 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⁹⁾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본도인이라면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덧붙인다.

‘나’는 타나카 씨가 찾아와 길게 말을 늘어놓을 때도 “네!”라는 대답만 되풀이한다. 그가 돌아가고 난 후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짧은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타나카 부부와 함께 이웃으로 사는 것이 나날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진다. 급기야 타나카 부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진다. 즉 15미터의 ‘안전거리’가 무너지고 ‘나’가 느낀 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이다. ‘나’는 15미터의 거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많은 연구들이 ‘나’와 타나카 부부가 점점 가까워지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시선을 모으며 그 문학적 형상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집중하지만, 그보다 필자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공포심이다. ‘나’의 공포심은 미지의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축적된 경험에서 기인하는 익숙하고 구체적인 공포심이다. ‘나’에게 내지인은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 타나카 부부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근처

9) 「隣居」, p. 328, 인용자 강조

에 사는 내지인이라고 하면, 파출소의 ‘경찰’과 국민학교 관사에 머무는 ‘교원’들이 전부이다.”¹⁰⁾라고 한 언급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나’의 말에 의지하자면, 대만인 거주지역을 ‘침입’하는 내지인은 ‘치안’과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치안’과 ‘교육’은 식민지에서 원활하게 일본제국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만인들과 접촉하여 훈육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치안’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선/경계/기준을 넘지(越境) 않는 것’이다. 대만인 거주지를 순찰하는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15미터 간격을 두고 있는 일본인 거주지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 대만인들을 단속하는 일이다. 대만인들이 함부로 15미터의 간격을 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 작업은 국민학교의 교원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학교는 어린 아이들을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국민‘답게’ 양성시키는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그곳은 국민을 준비하는 장소인 동시에, 대만 아이들에게는 본도인과 내지인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다.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유일하게 소통을 허가받는 언어는 ‘국어’인 일본어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는 대만어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언어를 바꾸고, 언어가 담지하는 정체성을 습득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익숙한 내지인은 ‘나’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나’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나카 부부의 월경을 두고 신경증에 가까운 과한 반응을 하는 자신을 향해 “어쩌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¹¹⁾라고 진단한 것이다.

그동안 선/경계/기준을 넘지 않으면 ‘나’는 ‘안전’했다. 경계가 무너지지 않고 선이 불투명해지지 않으면 내지인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일본인 거주지는 ‘근처’에 있지만, 15미터의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떨어져 있기

10) 『鄰居』, p. 328, 인용자 강조

11) 『鄰居』, p. 328.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타나가 부부가 경계를 넘어 ‘나’의 안전을 위협하며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것이다. 따라서 ‘나’가 느끼는 것은 안전판이 사라진 상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다. 왜냐하면 안전지대가 무너진 곳에서 내지인은 언제나 ‘나’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은 ‘나’의 공포와 불안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어서는 타나가 부부의 따뜻한 인간미와 본도인 아이인 ‘젠민’(建民)을 향한 헌신에 가까운 사랑을 상당히 공들여 묘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나’의 공포심과 두려움은 식민자로 존재하는 일본/일본인에 근거하며 대만인 일반이 집단적으로 공유한다고도 볼 수 있는 감정이라면, 타나가 부부를 향한 호의는 특정 개인과 관련된 사적 경험에서 기인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나’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품은 후자가 전자를 상쇄하고 교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처리해 놓았다. 이는 마치 노예제 자체가 갖고 있는 비인도적 폭력성을 비판할 때, 자신의 주인은 때리지도 않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반박하는 ‘순진한’ 노예의 등장을 보는 것 같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 사회구조 자체이다. 착한 주인인가, 악한 주인인가는 전적으로 우연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주인의 인성이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 자체의 잔인무도성이 노예제를 둘러싼 비판의 골자이다. 다시 말해서 타나가 부부는 ‘알고 보니’ 매우 선량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고 더러운 본도인 거주지와 청결하고 정돈된 내지인의 거주지가 명확하게 나뉘져 있었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대만인의 월경은 철저하게 단속되고 저지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의 월경에 ‘나’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필자가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나’가 타나가 씨에게 거의 내지인이 살지 않는 이곳에 사는 이유를 묻는 장면이다. ‘나’의 질문에 타나가 씨는 매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왜 여기에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별 다른 이유는 없는데. 내지인들이 살면 안 되는 곳이 뭐 따로 있나요? 굳이 이

유를 찾자면 집구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불편하긴요 익숙해지고 정붙이고 살면 좋은 곳이요”¹²⁾라고 답한다. 그런데 만약 「鄰居」가 앞선 연구들에서 처럼 ‘내대친선’·‘내대일여’ 같은 동화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면, ‘나’의 입에서 “본도인들이 살면 안 되는 곳이 뭐 따로 있나요?”라는 반문도 역시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식민자로 대만에 거주하는 내지인을 주어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타나카 부부를 제외하고 본도인 거주지 근처에 사는 내지인은 경찰과 교원들뿐인 이유이며, 타나카의 대답이 호쾌하고 시원 시원하게만 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2) 대만 지식인과 대만 민중의 공거

한편 「清秋」¹³⁾에서는 ‘야오쑤’, ‘야오둥’(耀東) 형제가 일본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내지인과 본도인의 공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작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막상 회사에 들어가니까 나를 영업부로 보내더라고” 하는 야오둥의 전언을 통해 내지에서 대만인들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야오둥은 약학전문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오사카의 유명한 제약회사에 졸업생 중에서도 유일하게 혼자만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이다. 그러나 제약부 근무라는 애초의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야오둥이 실제 그 제약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약품의 홍보 및 판매였다. 내지의 제약회사에서 본도인인 야오둥은 고등교육을 받은 약학 관련 ‘전문인’이 아니라, 우수한 ‘본도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야오둥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술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설명은 ‘본도인이다’인 것이다. 본도인인 야오둥은 내지인들과 함께 일을 하며 섞여 살지만 계속해서 선/경계 바깥으로 배제되고 부인되었다. 그리고 이는 “본도인들이 살면 안 되는 곳이 뭐 따로 있나요?”라는 가상의 질문에 돌아오게 될 답변이며, 야오둥이 남방행을 선택

12) 「鄰居」, p. 342.

13) 1944년 3월 台北清水書店出版의 소설집 『清秋』에 게재 ; 呂赫若 著, 『呂赫若小說全集(下)』, 林至潔 譯 台北: 印刻出版, 2006, p. 509-568.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淸秋」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10년 가까운 시간을 도쿄에서 지낸 야오선과 고향 사람들과의 공거이다. 작품 서두에서부터 야오선은 고향에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농촌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으며 이후 고향에서의 삶에 자신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의 호연은 내면의 불안과 초조함에 정비례한다. 「淸秋」에서는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두 군데 등장한다. 첫 번째는 야오선이 집안에서 세를 주고 있던 식당을 둘러보는 부분이다. 식당으로 영업 중인 이곳은 곧 야오선의 소아과 의원이 될 장소이기도 하다. 내부공사 견적을 위해 설계사와 함께 식당을 찾은 야오선은 식사를 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며 떠오르는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그런데 곧이어 “고향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야오선에게) 익숙한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순간 쓸쓸한 기분이 엄습했다.”라고 전한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밀함의 상당한 근거가 되는 양 쓰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낯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야오선은 익숙한 도쿄 생활을 접고 ‘낯선’ 고향마을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얀 의사가운을 걸치고 진료실에 앉게 될 야오선은 식당에 앉아 조용히 야오선 일행을 응시하고 있는 “태양 별에 그을려 붉은 색의 구릿빛 피부를 가진 거칠고 다부져 보이는” 고향 사람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야오선 일행이 식당을 둘러보는 내내, 식당의 늙은 여주인은 눈물까지 내비치며 자신들의 곤란한 처지를 구구절절 늘어놓는다. 그녀는 가게를 비우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등의 하소연을 쏟아내며 야오선을 은근히 압박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야오선의 반응은 모두 내면 심리묘사로 처리되어 있다. 4쪽에 걸친 장면 묘사에서 늙은 여주인만이 일방적으로 수다스럽다. 야오선의 대답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식당 주인의 읊소에 야오선의 내면은, 나는 지금 악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이 무겁지만 이는 값싼 인도주의일 뿐이다, 자리에 앉은 농부들의 시선이 온통 나에게 쏠리고 있다, 나는 지금 귀가 길게 자란

악마가 돼버렸다,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내 자신이 너무 싫다로 이어지는 불안과 연민, 자기혐오로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다. 하지만 늙은 여주인의 과다한 하소연과 야오선의 과잉된 내적 독백은 만나지 못한다. 늙은 여주인에게 야오선은 돈도 많고 많이 배운 의사 ‘선생님’이며, 또한 자신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인물이다. 한편 야오선에게 늙은 여주인은 무척대고 친근감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는 부담스러운 상대이다. 이들은 모두 본도인이며 같은 고향마을에 살지만 분명 분리되어 있다. 이들에게 공거는 없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진 채 서로가 낮설다. 늙은 여주인은 야오선이 어렵고 두렵다. 야오선은 늙은 여주인을 동정하고 연민할 뿐이다.

야오선의 신경쇠약에 가까운 불안과 초조함은 상피병(象皮病)¹⁴⁾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과의 조우에서 다시 한 번 두드러진다. 야오선은 성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소년과 마주치는데, 소년의 오른팔이 코끼리의 다리처럼 부어올라 있었다. 소아과 개원을 앞두고 있기에 야오선은 소년의 상태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지만, 소년의 어머니가 보이는 냉담한 태도는 그를 다시 한 번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든다. 소년의 어머니는 얼른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설득하는 야오선의 말허리를 자르며 “마을 의사들은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손은 만져보지도 않아요. 그게 심각한 병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¹⁵⁾라고 쏘아붙이고는 소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대화에서 버려지듯 혼자 남은 야오선은 의사의 의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곱씹으며 변민에 빠져든다.

이런 종류의 질병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사된 자의 의무가 아닌가. 근대 의학의 질병 정복 능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매개가 아니고는 이러한 능력을 펼칠 생각을 하지 않는

14) 열대, 아열대 지방에 많은 풍토병의 하나이다. 사상충이나 그 밖에 세균의 감염으로 인하여 피부와 피부 밑 조직에 림프가 정체하여 결합조직이 증식하는 병이다. 환부가 부풀어 오르고 딱딱해져 코끼리의 피부처럼 변한다.

15) 『淸秋』, p. 541.

상황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설령 돈이라는 매개가 있다고 해도, 돈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자도 결국 의술을 파는 장사치가 아닌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도 그는 다시 한 번 경악했다. 의학이라는 것도 그저 금전의 노예일 뿐이라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¹⁶⁾

야오션은 자신의 직업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 의사는 더 이상 의술을 인술(仁術)로 펼치는 이들이 아니라, 그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곧 의사가 될 야오션 역시도 고향 사람들 눈에는 전혀 다름바 없다. 야오션은 고향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지 비로소 깨닫는다. 야오션은 집안 어른들께 효를 다하고 고향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귀향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고향마을에 와서 가장 처음 한 일은 누군가의 생업 장소를 빼앗는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고향 사람들에게 야오션은 ‘돈을 받아야만’ 환자를 치료하는 마을 의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

앞서 야오션은 계속해서 자신과 고향 사람들 사이의 동질성을 확인했었다. 설계사와 들른 식당에서 그는 식사를 하고 있던 이들을 향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친근감”을 느꼈고, 성못길 자신을 졸졸 따라오던 짓궂은 산골 아이들에게는 “친근감이 절로 생겼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야오션이 결코 친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의 손님들은 야오션과 늙은 여주인의 지루한 실랑이를 조용히 응시할 뿐 끼어들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와 간격이 좁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일제히 도망가기를 반복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를 계속 쫓을 뿐 다가서지 않는다. 야오션은 같은 본도인이며 동향이라는 이유로 고향 사람들과의 동질성을 주장하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야오션은 같은 본도인이 ‘아니며’ 평범한 동향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야오션은 고향 사람들과의 대면을 통해 그는 그들과 구분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받았다. 그

16) 『淸秋』, p. 540-541.

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의 도쿄에서 야오선은 본도 출신의 유학생이었고 내지인과 다르다는 정체성을 체험적으로 내면화 했었다. 그러니까 식민지 출신의 지식인인 야오선은 평범한 본도인과의 차이도 내지인과의 차이도 다르다. 그는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고 어느 것과도 완전히 동일화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오선이 신경증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이다.

정리하자면, 「鄰居」와 「淸秋」 모두에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작가는 이들의 신경증적인 불안감을 ‘공거’라는 모티브를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다. 우선 「鄰居」는 본도인 주거지에 들어와 사는 내지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내지인과 본도인 사이에 강력하게 가로놓인 경계를 넘게 함으로써 화해와 공존의 낭만적인 서사를 구축해보려 한다. 그러나 내지인의 월경은 오히려 본도인인 ‘나’에게는 최소한의 안전판조차 제거된 상황에 대한 공포이고, 앞으로 초래할지 모르는 불행에 대한 불안으로 다가온다. 반면 「淸秋」에서는 내지인과의 공거를 동생 야오동의 짧은 언급으로 갈음하는 한편, 일본 유학을 마치고 고향마을로 돌아온 야오선과 고향 사람들의 공거를 전면에서 등장시킨다. 야오선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무턱대고 고향 사람들에게 상당한 친밀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가 대면한 마을사람들 중에는 정작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사람들의 건강과 위생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야오선의 ‘야심’과 달리, 마을사람들에게 그는 돈벌이 수단으로 의술을 사용하는 여느 의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야오선이 마을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확인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느끼는 낯센과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다. 그는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사회비판적 인식과 계몽의 의지를 지녔지만, 그 근대의 ‘지식’으로 인해 식민지 고향마을의 전근대적인 분위기와 낙후된 모습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¹⁷⁾ 하지만 마을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이 낯센/거리감은 일본 내지에서 본도 출신의 유학생으로서 느꼈던 낯센/거리감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즉 야오선은 어디에서도/누구에

17) 김용희,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풍경에 대한 내면의식과 시적 양식의 모색」, 『한국문학 논총』 43, 2006, p. 229-258.

게도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승인받지 못한다. 이처럼 식민지 지식인인 ‘나’(「鄰居」)와 야오쑤(「濤秋」)에게 공거는 안정감이나 귀속감을 주는 대신 위협과 동요하는 정체성, 불안감만을 안겨준다.

2. ‘불안한’ 식민지 지식인과 시대인식

1) ‘의심스러운’ 화자가 전하는 내대친선(內台親善)

「鄰居」의 ‘나’가 타나카 부부에게 가졌던 공포와 불안은 서사의 중반부가지만 해도 내지인에 대한 선부른 오해가 불러온 해프닝 정도로 끝날 듯했다. ‘나’를 대하는 타나카 부부의 언행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은 아니다. 그들은 ‘나’에게 한결같이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사건은 이들 부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시작된다. 친자식이 없다는 점은 줄곧 부부의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이사 온 지 반 년 정도 지났을 무렵, 부부는 젓먹이 아기를 안고 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아이를 잠시 맡겼었노라 ‘나’에게 둘러댄다. ‘나’의 눈에 뭉뚱바지를 입고 있는 어린아이는 영락없이 본도인 아기이다. 하지만 타나카 씨의 부인은 “보모가 본도인이라서 그래요”¹⁸⁾라며 말을 대충 얼버무린다. 이어 이야기는 타나카 부부가 아이를 끔찍하게 아끼며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상세하게 전하고, 이에 부응하듯 ‘나’는 내지인 부부의 본도인 아이에 대한 헌신에 거듭 감격한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나’가 전하는 내용과 사뭇 다르다. 타나카 부부가 데려온 아이는 ‘나’의 학생인 리젠산(李健山)의 동생, 젠민이다. 젠산의 서술을 통해 ‘나’의 표면적인 관찰이 숨겨놓은 타나카 부부의 일방적인 처사가 전해진다. 우선 젠산의 부모는 결코 아이를 타나카 부부에게 맡기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타나카 부부가 리씨 부부에게 아이를 달라면서 고집을 피워 기어코 데리고 온 것이었다. ‘나’의 감동에 전이되어 서사를 쫓던 독자들은 여기에서

18) 「鄰居」, p. 333.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타나카 부부가 밤잠을 설치가면서 젠민을 돌보고 애지중지하는 행동은 젠민의 친부모의 동의 없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젠민의 말을 빌리자면, 타나카 부부는 리씨 부부가 젠민의 입양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무리하게/억지로 젠민을 데리고 가서는 아이가 자신들과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한 달이 넘도록 리씨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타나카 부부는 지극정성으로 젠민을 자신의 아이로 만들어갔다. 이야기가 ‘나’의 관찰에 근거한 알곳은 감동 스토리로 교활하게 시선을 흐트리지 못하도록 저지할 때, 타나카 부부의 행위가 지시하는 의미는 명확하게 포착된다. 이 내지인 부부는 본도인 아기를 빼앗다시피 데려갔고, 자신들의 내지인 아이로 둔갑시켰다.

이를 위해 타나카 부부는 리씨 부인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한다. 아이를 데려온 첫날부터 타나카 부인은 젠민의 친모를 보모로 바꿔치고, 자신을 모친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리씨 부인의 면전에서 이를 보다 노골적으로 기정사실화한다. 타나카 부인은 젠민의 이름을 ‘타미오’(民雄)로 바꿔 부르는가 하면, 젠민에게 리씨 부인을 계속해서 보모로 인식시킨다. 그런데 타나카 부인이 젠민/타미오를 안고 리씨 부인에게 보내기를 거부하는 장면은, ‘나’의 서술에 의해 다시 한 번 묘하게 굴절된다. ‘나’는 한 아이를 위해 따뜻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두 여인의 모습에 벅찬 기분마저 느꼈다고 쓰고 있다. 작품의 중반까지는 ‘나’와 독자 모두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젠민의 등장으로 독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김새를 알아차리게 되고, 독자는 더 이상 ‘나’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제 독자는 ‘나’의 감상과 판단에 상관없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고 독해해야 한다. 필자는 이것이 작가의 진짜 노림수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 달 만에 자신의 아들을 보러 오는 리씨 부인을 집요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한가득 들려 있는 모습도 결코 놓치지 않았다. 또 어린 아들이 한 달 만에 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타나카 부인에게만 안기려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리씨 부인의 적막한 시선을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결론은 두 여인의 뜨거운 모성애를 예찬하는 영똥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려 깊고 세심한 관찰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단순하고 표면적인 판단으로 이어진다. 관찰과 판단이 빚어내는 낙차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독자는 ‘나’의 시선에 의지해 사건을 들여다보지만, ‘나’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나’의 설명과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세할 수록 독자는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작가 휘허뤄는 ‘의심스러운’ 화자를 내세움으로써 독자를 적극적으로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인다. 온전히 믿기 어려운 화자의 등장은 독자의 화자에 대한 믿음을 지연시키고, 독자에게 해석의 기회를 넘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복수(複數)의 해석이 발생한다. 독자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나’의 판단을 의심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근대서사에서 일반적으로 화자는 발화의 전권을 가지고 사건을 전달하고, 독자는 화자의 시선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이 사건의 전모(全模)를 모두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작가, 화자, 독자 사이의 균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예 인지되지 못한다. 그러나 작가가 어리석은 화자로 입을 열게 하는 순간 상황은 바뀐다. 독자는 화자를 마뜩치 않은 눈으로 바라보며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사건의 진상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필자는 휘허뤄가 「鄰居」에서 실제로는 두 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써나갔다고 생각한다. 본도인인 ‘나’가 전하는 내지인 타나카 부부의 해피엔딩과 리씨 부부의 새드 엔딩이 그것이다. 그러나 리씨 부부의 이야기는 ‘나’의 휘방에 가려져 쉽게 드러나지 못한다.

젠민/타미오가 단독(丹毒)¹⁹⁾에 걸려 몹시 아팠던 때에도 리씨 부인은 자신의 아이를 곁에서 돌볼 수 없었다. 타나카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하겠다는 리씨 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대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본도인들이 생각하는 치료법을 민간의 수호신(開漳聖王)에게 기도하고 약초를 바르

19) 피부의 헌데나 다친 곳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열이 나고 종창, 동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전염병이다.

는 정도로 짐작하는 ‘나’의 침언이 이어지면서, 본도의 치료법은 현대의학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과학적인 것이 되고 타나카 부인의 처분은 일정 정도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실상은 리씨 부인이 자신의 아이를 돌보고 간호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한 순간이다. 리씨 부부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다할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타나카 부부가 쟈민을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묘하게도 쟈민은 순식간에 타미오가 되어버렸고 리씨 부부는 부모의 지위에서 배제되었다.

그런데 타나카 부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주장은 묘하게도 1940년 2차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의 「일본정부기본국책요강(日本政府基本國策要綱)」 속에 포함된 ‘내대일여’ 선언을 연상시킨다. 일본제국은 식민모국과 식민지를 전쟁총동원체제로 개편하면서, 대만인에게 일본인이 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만인의 수용과 동의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호의만이 한껏 강조되었다. 식민당국은 대만인에게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성명(改姓名)과 ‘國語’(일본어) 전용을 강제하는가 하면, 대만의 토착 종교를 금지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대만인들은 본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렸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사를 표명할 수 없는 정치사회 체제 아래에서의 대만인들의 모습은 리씨 부부의 망연한 모습과 반복적으로 겹쳐진다.

결국 소설은 내지인 타나카 부부와 본도인 리씨 부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타이베이로 떠나는 타나카 부부를 전송하기 위해 ‘나’와 리씨 가족 모두가 기차역에 모였다. 이날 타나카 부인의 얼굴은 확연히 젊고 활기차 보인다. 그리고 그녀의 품안에는 쟈민/타미오가 안겨 있다. 타나카 부인은 아이의 양손을 대신 흔들면서 ‘나’와 리씨 가족에게 “さよなら!”를 외치고, ‘나’와 리씨 가족은 만세라도 부르듯이²⁰⁾ “さよなら!”로 답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타나카 부인의 환한 얼굴을,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시선으로 응

20) “さよなら!”李健山等人宛若呼叫萬歲似的更大聲呼喊。작품의 묘사를 그대로 인용, 「鄰居」, p. 344.

시하는 리씨 부인의 얼굴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왁자지껄한 환송식에 끼어 있었지만, 손수건을 쥐고 연신 눈물만 흘린다. 그녀의 행동은 남편 리페이위안(李培元)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젠민은 이제 정식으로 타나가 씨에게로 입양된 것이지요?”

나는 멍하니 서 있는 리페이위안에게 물었다. 리씨는 떠나가는 기차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아니, 아직이요.”라고 대답했다.²¹⁾

리씨의 대답은 이 대단해 보이는 환송이 얼마나 기괴한 장면인지를 여실히 설명해준다. 그러니까 리씨 부부는 눈앞에서 자신들의 아이를 빼앗긴 셈이다. 타나가 부부가 젠민/타미오를 아무리 최선을 다해 돌본다 한들, 그 시작은 타나가 부부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며 타인의 고통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동의 없는 일방적인 호의는 상대에게 거절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이기적인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의 친자식처럼 본도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내지인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 자신의 아이를 내지인에게 내어주기 주저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본도인 부부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시킴으로써 ‘내대일여’의 동화정책이 갖고 있는 허위성과 잔인성을 은밀히 짚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작가 휘허위는 내지인과 다른 대만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일기에서 그 단초를 타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1942년 3월의 일기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오늘 잡지 『北支』를 두 권 샀다. 중국인의 생활사, 『紅樓夢』을 희곡으로 각색하고 싶다.”(3일)²²⁾, “오늘밤은 몸이 좀 나아져서, 작년부터 거의 손대지 못하고 내버려두다시피 했던 『紅樓夢』을 다시 번역했다. 10년이 넘게 걸리더라도 이 걸작을 번역해서 널리 알리도록 해야겠다. 이것은 대만인으로서의 의무이다.”(14일)²³⁾ 또 1943년 6

21) 『鄰居』, p. 344.

22) 呂赫若著, 『呂赫若日記』, 種瑞芳譯, 台南: 國家台灣文學館, 2004, p. 77.

23) 『呂赫若日記』, p. 84.

월 7일자에서는 “오늘은 『詩經』, 『楚辭』, 『支那史研究』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샀다. 중국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무이다.”²⁴⁾라고 적고 있다. 뤼허뤄는 선진연구자들의 연구대로 분명 대만 본도의 자연환경, 본도인들의 생활모습, 전통적인 세시풍습과 풍속 등 본도 고유의 대만성(臺灣性)에 주목했고, 이를 작품 속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대륙과의 단절을 전제로, 중국/대륙의 한족(漢族)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뤼허뤄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족 정체성의 연속선 위에서 상상했다. 다시 말해서, 내지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의 한족과도 구별되는, 고유한 대만/대만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리씨 부부의 ‘젠민’이 타나카 부부의 ‘타미오’가 되는 것은 본도인의 한족 정체성이 내지인의 아마토(大和) 정체성으로 대체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

2) 남방행과 ‘막다른’ 희망

『清秋』에는 본도인 젊은이들이 여럿 등장한다. 우선 야오쑤원과 야오동 형제는 일본에서 유학하며 각각 의학과 약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졸업 후에 형제들의 선택은 달랐다. 야오쑤원은 집안 어른들의 뜻을 따라 고향 마을에서 소아과 의원을 개원하기 위해 대만으로 돌아온다. 이에 반해 야오동은 귀향을 재촉하는 부친의 요구를 뿌리치고 일본에 남아 오사카 소재의 유명한 제약회사에 제약사로 취업한다. 소설은 야오쑤원 형제의 전혀 다른 결정이 들의 성격적인 기질과 욕망이 상이한 것에서 기인한 듯 전한다.

장자인 야오쑤원은 청초의 ‘문수재’였던 조부에게 굉장한 존경과 애정을 품고 있는 동시에, 행정가·정치가를 선발하는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우선은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시문을 짓던 시절을 한없이 동경한다. 또한 ‘효’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자기 형제들

24) 『呂赫若日記』, p. 358.

의 뒷바라지로 노쇠해진 부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개원을 하는 대로 부친이 일을 그만두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또 제 나이로 보이지 않을 만큼 머리가 하얗게 센 모친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개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잡는다. 야오쑤에게 효를 다하는 길은 곧 소아과 개업의가 되는 것이다. 즉 그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일본에서 현대의학을 공부한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발전이나 입신양명, 전문직 종사에 있지 않다. 조부와 부모의 뜻을 좇고 곁에서 효를 다하는 것이 더 우선으로 꼽힌다. 그러니까 최첨단의 근대학문은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일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오쑤의 ‘진짜’ 속마음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그는 십 년에 가까운 도쿄 생활을 접고 고향 마을에 내려와 지내면서 자신조차 명확히 연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맞닥뜨린다. 표면적으로는 주변의 이런저런 방해로 인해 ‘허기증’ 발급이 지연된 탓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불안감은 개원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히 해결될 종류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야오쑤가 가장 못 견뎌하는 것은 조용하고 단조로운 고향에 남아 시골의사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일은 당연하고, 자신은 그 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 대면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는 대신 의사들의 속물근성을 비난하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환멸을 ‘핑계’로 개원 계획이 좌절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하지만 다른 마을 의사들의 속물근성이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악한 고향 마을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야오쑤의 신념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의 삶이나 직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장사치 정도로 전락한 의사들의 존재와 별개로, 야오쑤의 신념은 그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야오쑤의 과장된 푸념에 속지 않기 위해, 야오쑤가 자신의 불안감을 처음 언급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말 너무도 한가하다! (중략) 순간, 시골생활의 고적함이 엄습해온다. 계

속 책만 들여다보는 것도 고통이다. 그는 마을을 좀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5분이면 나갈 채비를 마칠 수 있다. 하지만 나간다고 한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전에 없이 초조해졌다.²⁵⁾

야오쉰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조부가 아끼는 국화를 가꾸고 조부의 서재에서 『支那詩人傳記』 등을 빌려 읽는다. 그러나 한가롭고 조용한 시골생활에서 그는 정작 고적하고 초조하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남방’으로 가서 자신의 꿈을 펼치겠다고 전하는 동생 야오동의 편지를 받으면서 더욱 심해진다. ‘남방’은 야오쉰의 입을 통해서도 “현재 남자들이 가장 동경하는 세계”로서 증언된다. 「淸秋」에서는 야오동 말고도, 야오쉰의 의전(醫專) 동창생, 식당 주인의 아들 황명진(黃明金), 허가증 발급을 방해하던 마을 의사 장유하이(江有海) 등이 모두 ‘남방’으로 향한다. 흥미로운 것은 야오쉰이 이들의 남방행 소식을 들으면서 느낀 감정은 혼자 남겨진다는 불안감이었다는 사실이다. 소설은 여러 차례 야오쉰이 느끼는 적막감을 언급하지만 이유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농친다. 하지만 사실 야오쉰의 불안감/적막감은 귀향과 함께 시작되었고 ‘남방’이라는 단어와 연동될 때 더욱 증폭되었다. 왜냐하면 타인의 남방행은 야오쉰 혼자만이 고향 땅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야오쉰에게도 ‘남방’은 피를 끊게 하고 흥분시키는 단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부친의 뜻대로 고향 마을로 돌아와 개업의가 되는 것이 야오쉰의 욕망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불안감/적막감은 손끝의 가시처럼 야오쉰을 계속해서 괴롭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오쉰은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기를 거부한다. 대신 조부의 시대가 담보했던 가치에 몰두하고, 소아과 의원을 개원할 수 없는 방해요인들에 집착한다. 마치 그의 주동적인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장애물에 의해서 개원이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말이다.

야오쉰은 효를 다하고 본도의 발전에 힘을 신기 위해 대만으로 돌아왔지

25) 「淸秋」, p. 517.

만, ‘남방’으로 향하는 다른 젊은이들의 선택을 보고 동요한다. 대만에서는 1942년 4월 1일 처음으로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는데, 1차 모집에 지원한 본도 젊은이들의 수는 무려 42만 6천여 명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중 단 1100여 명만이 지원병으로 발탁되었다. 해군특별지원병제도는 이듬해인 1943년 8월 1일에 실시되었다.²⁶⁾ 1945년 징병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남방행을 택했던 본도 출신의 육군특별지원병은 총 6000여 명, 해군특별지원병은 총 11000여 명이었다.²⁷⁾ 도대체 왜, 혹은 무엇을 위해 이 많은 본도의 젊은이들이 남방행을 선택할 것일까. 내지 출신의 일본인들에게 일본제국의 군인으로서 제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직 내지인만이 군인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식민당국은 여러 차례 대만인들에게 “대만인은 병역상의 부담이 없으므로, 응당 다른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공헌을 해야 한다”고 공포했다. 그러나 대만인들 입장에서 속사정은 전혀 달랐다. 대만인에게 병역의 의무는 없었지만, 군인보다 훨씬 더 낮은 지위의 군속(軍屬)²⁸⁾이나 군부(軍夫)로 이미 전쟁에 동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⁹⁾ 그러므로 ‘지원병’ 형태의 징모는 본도인들에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신분상승과도 같은 의미였다.

「淸秋」의 황밍진이 남방행을 선택한 직접적인 이유는 야오신의 의원 개원으로 식당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도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남방으로의 종군(從軍)을 결심한 것이다. 그런데 황밍진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쫓겨 가듯이 떠나는 남방행을 전혀 다르게 의미화 한다. 그는 “계속 식당을 하고 산다면 지루하고 편한 생활에 빠져 살게 됐을 텐데, 선생님(야오신)의 개원 결정이 저의 결심을 앞당겨 줬습니다. 선생님 덕분

26) 한반도에서 육군특별지원병 제도가 실시된 것은 1938년 4월 1일이었다. 한편 해군특별지원병 제도는 대만과 동일하게 1943년 8월 1일에 실시되었다.

27) 林桂蓉, 「教科書中沒有的歷史-臺灣日本兵之研究」, 『北市教大社學報』 10, 2011, p. 75.

28) 군속은 군부대의 문관이나 문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 또는 선서를 한 민간인 등을 가리킨다.

29) 黃昭堂 著, 『台灣總督府』, 黃英哲 譯 台北: 前衛出版, 2013, p. 190.

에 저 역시 빨리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³⁰⁾라고 말한다. 황밍진에게 ‘남방’은 대만에서의 “지루하고 뻘한 생활”을 벗어던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품은 땅으로서 재규정된다.

한편 황밍진과 달리 야오둥이나 야오선의 동창생, 마을 의사 장유하이 등은 고등교육을 받은 본도의 지식인들로, 대만에서의 삶이 직접적으로 곤경에 빠졌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인물들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 같이 남방으로 떠난다. 우선 이들이 남방으로 향하는 목적은 부의 축적이나 상업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소설은 이들이 느끼는 현실에서의 결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야오둥이야 약학전문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에서 일하게 된 상황에 불만을 품었다고 쳐도, 나머지 둘은 야오둥과 다르게 한 병원의 봉직의이거나 개업의로서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남방으로 향하는 것인가. 필자는 남방이 그들에게 ‘식민지인’, 제국의 ‘이등신민’이라는 식민 현실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식민당국이 전쟁총동원의 출구전략으로서 ‘남방’을 미화하고 선전하면서 대만인들의 남방행을 부추겼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열풍’(南方熱)이라고 할 만한 대만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단순히 식민당국의 간교한 언술과 술책을 간파하지 못한 무지와 어리석음만으로 차치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필자는 식민지인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반색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남방’ 담론 속에 식민지인들의 아주 오래된 욕망이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제국 내부에서 본도인의 주된 정체성은 ‘식민지인’이었다. 설령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들은 뛰어난 ‘본도인’이었다. 내지인보다 더 내지인처럼 일본어를 구사하고, 아무리 하이쿠(俳句)를 잘 짓는다고 해도 ‘본도인’, ‘식민지인’이라는 꼬리표를 떨 수는 없었다.

30) 『淸秋』, p. 562.

1943년에 발표된 천취취엔(陳火泉)의 「길(道)」³¹⁾은 이러한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형상화해놓았다. 주인공 청난/세이난(靑南)은 본도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밀린다가, 영문도 모른 채 내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일본인이라 믿고 싶은 ‘내적인’ 욕망과 자신을 본도인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메우며 분을 삭인다. 청난/세이난은 자신이야말로 일본인 중의 일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다. 하지만 이 단절과 분열을 메우는 작업은 매번 욕망 실현의 불모성을 확인해줄 뿐이다. 세이난/청난의 간절한 바람이나 눈물겨운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일본인’의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다.³²⁾ 필자는 청난/세이난의 일본인이 되고 싶은/되려는 욕망에 ‘민족주의’라는 잣대를 들이대 비난으로만 끝맺음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인들의 삶은 민족주의를 시금석으로 하는 친일협력과 저항의 이분구도 안으로 일괄 수렴되지 않는다. 즉 민족의 자주독립과 공동체 건립에 헌신한 위대한 영웅들의 삶과 개인적인 치부나 영달을 위해 식민제국주의, 국가파시즘을 열렬히 지지했던 파렴치한들의 삶으로만 양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평범한 이들이 꾸리는 각양각색의 삶의 양태는 오히려 친일협력과 저항 사이에 펼쳐진 넓은 스펙트럼 안에 존재한다. 심지어 1940년대는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이미 45년을 넘어선 때이다. 그러니까 청장년층 세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일본제국의 국민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일본 천하에서 ‘본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등국민으로 취급받으며 차별과 배제 속에 고통당했음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청초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나 향수도 없다는 것이다. 당시 식민지 청년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식민지인으로서’ 겪는 부당한 차별과 배제였다. 1940년대 식민지의 젊은이들은 민족이나 자기

31) 陳火泉, 「道」, 『文藝臺灣』 第6卷 3號, 1943年.

32) 신민영, 「내셔널리즘의 계기를 벗어나 제국의 식민지 문학 독해하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p. 22-44 참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만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개인’으로서 고민하고 갈등했다. 그들은 ‘식민지의’ 청년/지식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온전히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청년/지식인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때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서 그들의 눈에 포착된 것이 바로 ‘남방’이었다.

대만 청년들의 갈망은 일본제국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조선의 청년들에게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포착되는 부분이 있다. 『조선일보』의 간도 특파원이었던 이종정이 만주와 몽골을 돌아보고 나서 1927년에 쓴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 땅이 한 예날 우리 선민(先民)의 안주지이었던 것은 회고함이 도리어 무익하다할지라도 목하(目下) 수백만 백의(白衣) 대중이 주거하는 지대임에 있어 또는 우리의 만대 자손이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번영할 억만년 미래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의 사정을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고국에 있어서 나날이 생활의 파멸을 당하고 쫓겨나는 무산 대중의 살길을 찾는 곳도 만주 벌판이라 할 것이며 남다른 의지와 포부로 고국을 떠나는 지사(志士)의 찾는 활무대(活舞台)도 이 만주 황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³³⁾

이종정은 만주가 “우리 先民의 안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내세워, 조선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만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생존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어 그는 ‘만주’라는 공간을 현재는 “目下 수백만 白衣대중이 주거하는 지대”, “지사의 찾는 활무대”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삶의 근거지이며, 미래에는 “만대 자손이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번영할” 공간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만주는 조선의 과거·현재·미래의 세 개의 차원에서 조선과 친연성을 갖는 공간이 되며,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국적의’ 공간으로 탈맥락화된다. 만주행

33) 이종정, 『滿蒙踏查旅行記』, 『조선일보』, 1927년 10월 15일-12월 02일 : 최삼룡 외, 『만주기행문』, 서울: 보고사, 2010, p. 53에서 재인용.

을 택한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과 ‘남방’으로 향했던 식민지 대만 청년들의 열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식민지 청년들에게 ‘만주’와 ‘남방’이라는 공간이 일본제국 영내(領內)의 식민지라는 ‘조국’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행한 삶을 탈피할 어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안고 있는 땅으로서 상상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태평양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일본제국은 동남아 지역에 파견하는 행정관(施政官)에 대만인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했다. 이것은 일종의 회유책이었는데, 일본은 이등국민인 대만인에게도 ‘고깃국’을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즉 대만인들로 동남아에서 통치자로서의 쾌감을 느껴보게 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불만을 상쇄하려는 의도였다.³⁴⁾ 대만이 남진(南進)의 기지(基地)로서 그 역할이 나날이 부상하자, 대만의 젊은이들은 꿈에 부풀었다. 대만보다 늦게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편입하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자신들이 식민지인, 이등국민의 명예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다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이는 야오동의 입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남방행을 결정한 것은) 젊음의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야. 나는 남방이 미래에 내가 활약할 무대이고, 또 내가 앞으로 크게 한 발을 내딛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해.”³⁵⁾ 야오선의 해석 역시 동일하다. “고향에 틀어박혀 있는 나랑은 달리, 야오동은 새로운 시대의 선봉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다.”³⁶⁾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오선은 귀향과 동시에 그를 괴롭히고 있는 깊은 불안감과 황량한 적막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동생도 그렇고 황밍진도 그렇고 자기 주변의 청년들은 모두 광활한 천공을 날고 싶어 하는데, 자신은 흥미도 없는 직업 때문에 앞길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차이가 그를 다시 깊은 적막감 속에 휩싸이게 만들었다.”³⁷⁾ 이처럼 뒤흔드는 남방에서 자

34) 『台灣總督府』, p. 194

35) 『淸秋』, p. 551.

36) 『淸秋』, p. 519.

37) 『淸秋』, p. 557.

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은 야오선의 진짜 욕망을 우울감/불안감 속에 애처롭게 숨겨두었다.

그러나 작가는 야오선을 고향에 그대로 남겨둔다. 게다가 개원을 방해하던 모든 장애물들도 일시에 제거해준다. 아마도 야오선은 소아과 의원을 무사히 개원하게 될 것이다. 식민지인/본도인이라는 태생적 제약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존재를 증명해보이고 싶은 청년을 굳이 고향에 주저앉힌 이유는 무엇일까. 뤼허뤄는 1943년 8월 7일자 일기에 「淸秋의 집필의도에 대해 “현재 대만사회의 분위기를 묘사함으로써, 본도 지식인들의 동향을 보여주고 싶다.”³⁸⁾고 밝혔다. 그러므로 소설 속의 ‘남방열’은 결코 지나친 억측이나 과장이 아니다. 뤼허뤄는 본도 청년/지식인들의 고민과 갈등에 상당히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은 갈등을 해소해줄 어떤 가능성으로서 남방을 상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오동의 남방행을 두고“(남방행이) 안 좋은 일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남방’이라고 하는 데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피를 펄펄 끓게 하는 곳이잖나.”³⁹⁾라고 하는 조부의 판단은 이러한 추측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뤼허뤄는 대만/대만공동체에도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만문단에 대한 식민당국의 황민문학(皇民文學)/국책문학화 요구를 ‘외지문학’(外地文學)에의 헌신으로 그 성격을 옮겨놓으려 했다. 즉 일본 제국의 외지로서의 대만 본도의 전통문화, 관습, 생활모습, 토속종교 등을 충실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냄으로써 일본문학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문학봉공’(文學奉公)의 원수라는 논리이다. 이는 1943년 대만문단에서 벌어진, 소위 ‘똥’ 리얼리즘(糞 現實主義) 문학논쟁에서의 입장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논전은 재대(在臺) 일본인 작가들이 본도 출신 작가들을 향해 ‘대동아전쟁이라는 당면한 현실의 엄중성과 문학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황민(皇民)으로서 마땅히 다루어

38) 『呂赫若日記』, p. 389.

39) 「淸秋」, p. 531.

야 할 역사적 현실은 외면한 채 현실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맹 비난⁴⁰⁾하면서 벌어들였다. 그러자 양쿠이(楊逵), 장원환(張文環), 뤼허뤄 등의 본도 출신 작가들은 내지 출신 작가들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악습과 폐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만인들의 삶 역시 대만의 현실이며,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⁴¹⁾고 맞섰다. 이어 뤼허뤄는 논쟁이 한창이었던 1943년 7월, 보란 듯이 대만 본도의 색채가 아주 강한 「석류」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필자는, 뤼허뤄가 식민지 청년/지식인들의 자아실현의 욕망과 그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기회의 땅으로서의 남방을 인정함은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로 내지/내지인과 다른 본도/본도인의 정체성, 문화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청년/지식인들의 남방행을 그리면서도 주인공 야오쑤만은 본도의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수호하고 낙후된 의료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향에 남겨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즉 일본제국의 외지/지방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본도의 발전은 본도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1940년대의 뤼허뤄에게 중국/대륙의 중화민국을 통한/연계한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가능성은 선택사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는 일본제국의 외지/지방으로서의 ‘현실’ 위에서 식민지인이라는 차별과 배제를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동시에 대만 본도/본도인의 한족 전통문화/정체성을 보존할 방법을 모색했다. 식민당국은 전쟁동원을 위해 남방을 선전했고, 본도의 많은 젊은이들은 식민제국주의나 국가 파시즘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차별을 벗어나 꿈을 펼쳐볼 기회를 위해 남방으로 향했다. 관방의 담론은 민간의 필요에 의해 전유(專有)되었고 이 사이에서 뤼허뤄는 본도/본도인

40) 濱田隼雄, 「非文學的な感想」, 『臺灣時報』, 1943년 4월號, 『현대 동아시아 문학의 이해』, 황요찬譯 2017, p. 651-660.; 西川滿, 「文藝時評」, 『文藝臺灣』 第6卷 第1號, 1943년 5월 1日, 『현대 동아시아 문학의 이해』, 손지연譯 2017, p. 663-665.

41) 楊逵, 「冀切芥子」, 『臺灣文學』 第3卷 第3號, 1943년 7월 31日, 『현대 동아시아 문학의 이해』, 황요찬譯 2017, p. 667-675.

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압축적으로 제시된 작품이 바로 「淸秋」이다.

III. 결어

본 논문에서는 뤼허뤄의 1940년대 작품 「鄰居」(1942), 「淸秋」(1944)를 독해함으로써 당시 식민정책에 대한 작가의 시대인식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은 모두 본도 출신의 지식인 청년이 화자로서 등장한다. 그런데 ‘나」(「鄰居」)와 야오쑤(「淸秋」)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작가는 이들의 신경증적인 불안감을 ‘공거’라는 모티브를 통해 문화적으로 형상화 하는데, 우선 「鄰居」는 본도인 주거지에 들어와 사는 내지인을 등장시킨다.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내지인의 월경을 통해 두 민족의 화해와 공존의 낭만적인 서사를 구축해보려 하나, 오히려 본도인인 ‘나’에게는 최소한의 안전판조차 제거된 공포로서 다가올 뿐이다. 그동안 ‘나’는 선경계/기준을 넘지 않으면 ‘안전’했다. 그런데 어느 날 타나카 부부가 경계를 넘어 ‘나’의 안전을 위협하며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데, 15미터의 ‘안전지대’가 무너진 곳에서 내지인은 언제나 ‘나’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淸秋」에서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고향마을로 돌아온 야오쑤와 고향 사람들의 공거가 전면에서 등장한다. 야오쑤는 처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무턱대고 고향 사람들에게 상당한 친밀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가 마을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확인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느끼는 낯섦과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다. 야오쑤가 낯설기는 마을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일본에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의사 ‘선생님’은 같은 본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내지인만큼이나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 야오쑤는 고향의 마을사람들과도 다르고, 본도 출신의 청년/지식인으로서 내지인과의 분리를 받는다. 즉 야오쑤는 어디에서도/누구에게도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승인받지 못한다. 이처럼 식민지 청년/지식인인 ‘나’와 야오쑤에게 공거는 안정감이나 귀속감을 주는 대신 위협

과 동요하는 정체성, 불안감만을 안겨준다.

작가는 이 초조하고 불안한 식민지 청년/지식인들을 빌려 대동아전쟁기 급변하는 시국과 그에 대한 시대인식을 전한다. 「鄰居」의 ‘나’는 타나가 부부와 점점 가까워지고, 아이가 없는 내지인 부부가 본도인 아이를 데려와 지극 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에 깊이 감동한다. 그러나 작품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독자들은 타나가 부부의 감동 서사와 평행하게 본도인 부부의 슬픈 서사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직접 이야기의 진상을 되짚어보게 된다. 타나가 부부의 젠민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은 이들 부부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며 타인의 고통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동의 없는 일방적인 호의는 상대에게 거절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이기적인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의 친자식처럼 본도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내지인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 자신의 아이를 내지인에게 내어주기 주저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본도인 부부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시킴으로써 ‘내대일여’의 동화정책이 갖고 있는 허위성과 잔인성을 은밀히 짚어내었다.

그런가 하면, 「淸秋」에서는 당시 대만을 휩쓸고 있던 ‘남방 열풍’에 대한 작가의 시대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는 주인공 야오선 외에도 동생 야오동, 야오선의 동창생, 의사 출신의 장유하이, 식당 주인 아들 황밍진 등 여러 식민지 청년들이 등장하는데, 야오선을 제외하고 이들은 모두 남방으로 떠난다. 당시 식민지의 젊은이들에게 ‘남방’은 우수한 식민지인/본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우수한 청년/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받아들여졌다. 야오선은 허가증 발급이 늦어지는 탓에 개원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불안감과 적막감을 변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은 귀향과 함께 시작되었고 주변의 모든 청년들이 남방으로 떠갈 것이라는 소식에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청년들의 남방행 소식에 야오선은 자기 혼자만이 고향에 남겨질 것이라는 초조함에 괴로워한다. 겉으로는 부모가 요구하는 대만의 전통적인

가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야오선의 욕망 역시 여느 청년/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남방에서 식민지인/본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버리고 자신의 꿈을 펼쳐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는 야오선의 개인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모든 외부적 장애물을 제거해주면서 이야기를 마친다. 필자는 작가가 야오선을 기어코 대만의 고향에 남겨둔 것은 식민당국이 ‘남방’을 선전하는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는 당시 대만의 젊은이들이 식민지인/본도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맞닥뜨린 현실적 제약과 불만을 공감하고 있었고, 그 불만을 해소하고 온전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남방’을 상상하고 있었다.

1940년대 본도 젊은이들 사이에 불었던 남방 열풍을 단순히 식민제국의 전쟁동원을 위한 얇은 술책에 기만당한 비극으로 읽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1940년대의 남방/남방행은 오히려 본도 젊은이들의 현실적 불만을 타개해줄 수도 있는 구체적인 선택지로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인정하는 한편, 휘허튀는 일본제국 내부에서 대만 본도/본도인의 전통 문화, 세시풍습, 고유한 종교 등 본도적인 정체성/특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일본제국의 식민 지배를 기정사실화 하는 전제 위에서 고안해낸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을 시발로 하여 중국/대륙의 중화민국과 식민제국 일본 사이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이미 대만 내에서 일본제국으로 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기도(企圖)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만의 화설치청원운동’은 식민지 시기 가장 대표적인 대만의 정치운동으로, 1921년부터 1934년까지 15차례 ‘대만의회’의 설립을 요구했다. 청원운동의 목적은 대만이라는 문화적·역사적·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민선의 특별대의기구를 대만에 설치하는 데 있었다. 이는 일본의 통치권을 인정하되 일정한 한도 내의 지방자치권을 요구하는 비교적 온화한 주장이었다.⁴²⁾ 다시 말해서, 식민제국의 동화 정책을 배격하면서 본도에서

의 자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청원운동이 한창이었던 2, 30년대에 학생시절을 보낸 휘허뤄 역시도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과 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휘허뤄는 고향에 남은 야오쑤원과 남방으로 향하는 본도의 다른 젊은이들 모두를 ‘동시에’ 긍정할 수 있었다. 대만에 남아 본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과, 제국의 일원으로 남방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꿈꾸는 청년들은 휘허뤄의 소설 속에서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주제어】 휘허뤄(呂赫若), 1940년대 대만소설, 「鄰居」, 「清秋」, 내대일어, 남방 열풍

42) 김영신, 『대만의 역사』, 서울: 지영사, 2001, p. 294-302.

[참고문헌]

【작품】

呂赫若, 「鄰居」, 『台灣公論』, 1942年 10月; 『呂赫若小說全集(上)』, 林至潔 譯 台北: 印刻出版, 2006.

呂赫若, 「清秋」, 『清秋』, 台北清水書店出版, 1944年 3月; 『呂赫若小說全集(下)』, 林至潔 譯 台北: 印刻出版, 2006.

呂赫若著, 『呂赫若日記』, 種瑞芳譯 台南: 國家台灣文學館, 2004.

陳火泉, 「道」, 『文藝臺灣』 第6卷 3號, 1943年 7月.

【단행본 및 학술논문】

김영신, 『대만의 역사』, 서울: 지영사, 2001.

김용희,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풍경에 대한 내면의식과 시적 양식의 모색」, 『한국문학 논총』 제43집, 2006.

김재용 · 신민영, 『현대 동아시아 문학의 이해』, 서울: 글누림, 2017.

신민영, 「내셔널리즘의 계기를 벗어나 제국의 식민지 문학 독해하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정진배, 「五四 近代性과 社會進化論」, 『인문과학』 제75권, 1995.

최문규, 「파시즘 문학의 담론과 정치적 기능」, 『인문과학』 제78권, 1997.

최삼룡 외, 『만주기행문』, 서울: 보고사, 2010.

키쿠치칸 외, 『대동아문화자대회 회의록』, 곽형덕譯, 서울: 소명출판, 2019.

呂正惠, 『呂赫若作品研究--台灣第一才子』, 台北: 聯合文學出版社, 1997.

垂水千惠 著, 『台灣的日本語文學』, 涂翠花 譯 台北: 前衛出版社, 1998.

王建國, 『呂赫若小說研究與詮譯』, 台南: 台南市立圖書館, 2002.

黃昭堂 著, 『台灣總督府』, 黃英哲 譯 台北: 前衛出版, 2013.

沈庆利, 「政治高压下的智性求索」, 『华文文学』 第59期, 2003.

樸路啟子, 「呂赫若 <清秋> 論」, 『東吳日語教育學報』 第33期, 2009.

林佳蓉, 「教科書中沒有的歷史-臺籍日本兵之研究」, 『北市教大社學報』 10, 2011.

坂井洋史, 「文学史」 研究の現在と展望 - 中国近代文学史を例に - 」, 『인문과학』 제97권, 2013.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뤼허뤄(呂赫若)의 1940년대 작품 「鄰居」(1942), 「淸秋」(1944)를 독해함으로써 당시 식민정책에 대한 작가의 시대인식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은 모두 본도 출신의 지식인 청년이 화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나」(「鄰居」)와 야오션(「淸秋」)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작가는 이들의 신경증적인 불안감을 ‘공거’(共居)라는 모티브를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는 한편, 이 초조하고 불안한 식민지 청년/지식인들을 빌려 대동아전쟁기 급변하는 시국과 그에 대한 시대인식을 전한다. 「鄰居」에서 작가는 자신의 친자식처럼 본도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내지인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 자신의 아이를 내지인에게 내어주기 주저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본도인 부부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시킴으로써 ‘내대일여’(內台一如)의 동화(同化)정책이 갖고 있는 허위성과 잔인성을 은밀히 짚어내었다.

「淸秋」에서는 당시 대만을 휩쓸고 있던 ‘남방 열풍’(南方熱)에 대한 작가의 시대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는 주인공 야오션 외에도 동생 야오둥, 야오션의 의전(醫專) 동창생, 의사 출신의 장유하이(江有海), 식당 주인 아들 황명진(黃明金) 등 여러 식민지 청년들이 등장하는데, 야오션을 제외하고 이들은 모두 남방으로 떠난다. 청년들의 남방행 소식에 야오션은 자기 혼자만이 고향에 남겨질 것이라는 초조함에 괴로워한다. 겉으로는 부모가 요구하는 대만의 전통적인 가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야오션의 욕망 역시 여느 청년/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남방에서 식민지인/본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자신의 꿈을 펼쳐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는 야오션의 개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모든 외부적 장애물을 제거해주면서 이야기를 마친다. 필자는 이를 대만 내에서의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뤼허뤄가 고향에 남은 야오션과 남방으로 향하는 본도의 다른 젊은이들 모두를 동시에 긍정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Abstract]

Assimilation policy and 'The South' fever in
Lv He-ruo's Novels of 1940s

Shin, Min Young (Yonsei University)

In 1942 and in 1944, Lv He-ruo published 「鄰居」(neighbor), 「清秋」(Qing Qiu), respectively. In this paper, I looked into how the author thought of the colonial policy of the Japanese Empire in the 1940s. In both novels, the narrators are an intellectual young man from Taiwan. 「I」(「neighbor」) and Yao Xun (「Qing Qiu」) are always anxious and nervous. Through the situation of “living together,” the author revealed neurotic anxiety. The anxiety of these colonial intellectuals is also the author's perception of the rapidly changing state during the Great East Asian War. In 「neighbor」 there is a moving story of a Japanese couple who cares very much about their Taiwanese child. However, this story hides the grief of a Taiwanese couple who lost their child to the Japanese couple. Through this work, the author secretly criticizes the falsehood and cruelty of the Japanese empire's assimilation policy.

In 「Qing Qiu」, you can see the author's perception of Taiwan's “Southern Frenzy” (南方熱). In addition to Yao Xun, many Taiwanese youths appear in the work, including his younger brother Yao-dong, Yao Xun's friend, Zhang Yu-hai(doctor), and Hwang Ming-jin(the son of a restaurant owner). However, all of them leave for 'the southern' except for Yao Xun. Yao Xun suffers from isolation that only himself will be left alone in hometown. Yao Xun seems to be willing to accept and comply with his parents' demands. However, Yao Xun wants to go to 'the southern' like other young people. This is because he wants to unfold his dream by removing the label of 'the colonized/Taiwanese Japanese' in 'the southern'. However, the author let Yao Xun not leave in his hometown. I believe this ending i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et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aiwan Parliament”. So that is why Lv He-ruo(the author) agreed Yao Xun left in his hometown, and at the same time, also agreed other Taiwanese youth to go to 'the southern'.

【Keywords】 Great East Asia war, 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
Taiwanese novel of 1940s, Lv He-ruo, the Southern

논문투고일: 2020.11.1 / 논문심사일: 2020.12.6 / 게재확정일: 2020.12.22.

【저자연락처】 idomybest-fkl@hanmail.net